

장흥군, 문학·관광 융복합 콘텐츠 구축한다

전남 문화콘텐츠산업 지원 선정 '문학강생 프로젝트' 추진 활용 옛 장흥교도소에 미디어아트 등 문학 치유·인문 여행 중심 도약

전라남도 장흥군이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한 '2025년 전남 문화콘텐츠산업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되면서 장흥만의 독창적인 문학관광 콘텐츠를 제작한다.

10일 장흥군에 따르면 이번 공모 선정으로 2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

다. 확보한 사업비는 옛 장흥교도소에 지역 문학자원을 기반으로 관광·교육이 결합된 '문학강생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다.

문학강생 프로젝트는 장흥이 보유한 풍부한 문학 자산과 옛 장흥교도소라는 공간의 역사적 상징성을 융합한 장흥군만의 독창적인 문학관광 콘텐츠다.

군은 옛 장흥교도소 내 옛 취사장을 활용해 '문학·힐링·자유·사색'을 주제로 한 미디어아트 전시공간 2개소를 조성할 예정이다.

미디어아트 전시공간에는 과거의 어둠

이 깃든 공간에서 빛과 언어, 이미지로 재탄생한 장흥 문학의 정수와 아름다움을 담아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장흥군은 도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1박2일 북캠프도 오는 10월 중 개최한다. 행사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문학의 치유적 가치와 자유의 의미를 함께 사유하며, 문학적 감수성을 키울 수 있도록 기획됐다.

청소년들의 1박2일 기록과 에피소드를 담은 내용은 다큐멘터리 영상으로 제작돼 교육적 활용도와 콘텐츠 확장성을 함께 도모할 예정이다.

장흥군은 이번 북캠프 운영을 연차적 프로그램으로 정례화해 청소년들이 문학과 예술을 통해 자기 성찰과 창의적 사고를 함양하는 인문교육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김성 장흥군수는 "이번 문학강생 프로젝트는 장흥군이 보유한 문학적 자산과 교도소라는 공간의 사회적 상처를 예술로 치유하고 재생하는 뜻깊은 시도"라며 "이번 프로젝트가 장흥을 문학 치유와 인문 여행의 중심지로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흥=김전환 기자



폭우·태풍 대비 '선제 대응' 돌입 순천시, 빗물받이 3만개소 등 점검

전라남도 순천시는 본격적인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비해 도로변 빗물받이와 하수도 맨홀 등 배수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섰다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이상 기후변화로 인해 집중호우, 태풍 등의 재난 양상이 대규모 및 다양화, 복잡화됨에 따라 안전관리 실태 점검과 풍수해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주요 도로변 빗물받이 3만개소를 점검하고 준설이 필요한 2만개소에 대해 준설을 완료했다. 이어 상습침수구역 374개소에 위치 표시 스티커를 부착하고, 우수맨홀 3000개소 등의 전수점검 및 사전 준설작업을 마쳤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도로 빗물받이와 우수관로의 퇴적물 및 나무뿌리 제거를 위해 긴급 예산을 투입하여 신속하게 정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순천시는 '2025년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수립해 본격 시행 중이며, 자율방재단과 이·통장, 마을지킴이 등과 민간협업을 통해 재난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순천=배서준 기자

순천시, 문화산업 메카 조성 신규 IP 활용 문화콘텐츠 제작 지원

전라남도 순천시가 신규 IP를 활용한 문화콘텐츠의 초기 창·제작비를 지원하는 '순천 IP 창·제작 지원 사업'의 참가기업을 오는 17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10일 순천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콘텐츠 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애니메이션 및 웹툰 분야의 창·제작 초기 단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지역 내 콘텐츠 기업이 안정적으로 정착 및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모집 대상은 20인 이하 관내 중소 콘텐츠 기업이며 관내 입주예정 기업과 개인 사업자도 신청 가능하다.

지원 규모는 애니메이션 최대 1억 1000만원, 웹툰 5000만원으로 총 8억 1000만원을 지원한다.

1차 기획안 평가를 통해 애니메이션 10개 과제, 웹툰 15개 과제를 선정하고 각 3000만원, 1000만원을 지원한다. 2차 최종 결과물 평가를 통해서는 애니메이션, 웹툰 분야별 3개 우수작품을 최종 선정해 각 8000만원, 4000만원을 시상할 계획이다.

한편 '순천 IP 창·제작 지원 사업'은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순천시와 (재)순천문화재단이 공동 추진한다.

자세한 내용은 순천문화재단 누리집 또는 e나라도움 공모사업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순천=배서준 기자

지게차운전기능사 등 수강생 모집 2025년 고흥청년리더 아카데미

전라남도 고흥군은 청년층의 경쟁력 있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2025년 고흥청년리더 아카데미'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교육과정은 총 10개 과정으로 전문자격취득 4개(컴퓨터활용능력 2급, 지게차운전기능사, 굴착기운전기능사, GTQ 2급), 민간자격취득 4개(커피바리스타, 파크골프지도자, 실버인지능력지도자, 아동공예지도자), 청년 소양과정 2개(명사 특강, 금융교육)로 구성됐다.

신청 자격은 고흥군에 주소를 둔 18세~49세 청년이며, 강사료와 재료비는 80%까지 지원된다. 다만 수강 신청이 저조한 과정은 제외될 수 있다.

수강생 모집 기간은 오는 20일까지로, 참여 희망자는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주민등록등본을 갖춰 이메일(kkim6603@korea.kr) 또는 방문(청춘누리, 인구정책실)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 확정 안내는 오는 24일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교육은 7월1일부터 과정별로 전문 학원과 청춘누리 등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고흥군 대표 누리집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청춘누리 또는 인구정책실 청년희망팀(061-830-5095, 6027)으로 문의하면 된다.

고흥=심정우 기자

전남 동·서 예술문화교류전 개최 13~19일, 여수진남문예회관서

제23회 전남 동·서 예술문화교류전이 오는 13일부터 19일까지 7일간 전라남도 여수 진남문예회관에서 개최된다.

10일 여수시에 따르면 한국예총 여수지회와 한국예총 목포지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여향의 전통을 간직한 여수와 목포의 예술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 간 예술적 교류와 화합을 다지는 장이다.

행사 기간 진남문예회관 전시실에서는 시화, 회화, 사진 등 다양한 장르의 작품 80여점이 전시된다.

지역 예술인들의 창의성과 예술혼이 담긴 수준 높은 작품들은 관람객에게 깊은 감동과 예술적 영감을 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오는 14일 오후 4시에는 진남문예회관 공연장에서 개막식을 겸한 공연 행사가 열린다.

개막공연에는 여수와 목포 양 도시 예총 소속 전문예술인들이 참여해 플루트 연주, 성악, 한국무용, 국악가요, 대중가요 등 풍성한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여수=이경기 기자



고흥군이 간척지 벼 대체작물 실증재배에 착수했다. 고흥군 관내 한 논에서 농민들이 장립종 벼를 이앙하고 있다.

고흥군 제공

고흥군, 간척지 대체작물 실증재배 착수

전라남도 고흥군은 정부의 벼 재배면적 감축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고흥만 간척지에서 벼 대체작물 실증재배에 본격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군은 지난 3월 실시한 '고흥만 간척지 벼 대체 유망작물 발굴 및 육성 타당성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간척지에 적합한 대체작물의 생육 특성과 수익성을 검토하고 실제 농가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이번 실증시험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실증재배는 원예작물 8종과 장립종 벼 11개 품종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원예작물 시험은 2692㎡ 규모의 시험포장에서 이뤄지며, 단호박·배추·옥수수·참깨·들깨·시금치·감자·콩 등이 정식 또는 파종됐다.

시험 조건은 고흥만 해수와 지하수를 관개수원으로 활용하고, 토양은 왕겨 및 폐유기배지를 혼합한 처리구와 무처리구로 나눠 비교 평가한다.

장립종 벼는 향미1호, 향미2호 등 11개 품종을 고흥만 간척지 1.5ha에 이양해 재배 중이다. 장립종 벼는 세계 쌀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품종으로, 최

고흥=심정우 기자

여수 디오션 워터파크, 14일 여름 시즌 본격 개장

2025 퍼니버스 썸머 페스티벌 '풀사이드 바비큐존' 구역 확대

호남 최대의 물놀이 시설인 전라남도 여수 디오션 워터파크가 오는 14일 전면 개장하며 본격적인 여름 시즌 운영에 돌입한다.

10일 디오션리조트에 따르면 올여름 디오션 워터파크는 '즐거움이 가득한 디오션 유니버스'를 주제로 '2025 퍼니버스 썸머 페스티벌'을 개최, 방문객들에게 시원한 물놀이와 짜릿한 공연이 어우러진 특별한 여름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오는 14일에는 대개장을 기념해 워터파크 내 특설 무대에서 DJ 루니와 DJ 원의 퍼포먼스, 지역 극단인 여수 상상플레

이스와 협업한 가족 코믹 뮤지컬이 펼쳐질 예정이다.

물놀이와 공연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이색 구성으로, 시원한 물속에서 신나는 음악과 유쾌한 퍼포먼스를 함께 만끽할 수 있다.

워터파크의 대표 어트랙션들도 본격 가동된다. 1.5톤의 물을 쏟아 올리는 대형 워터캐논 '캐논볼', 72도의 가파른 경사를 자랑하는 '다이렉트 슬라이드'를 포함한 10여종의 실내외 어트랙션이 철저한 안전점검을 모두 마치고 운영 준비를 완료했다. 실내 파도풀, 유수풀, 키즈풀 등 전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수영장 시설이 운영된다.

특히 고객 호응이 높았던 '풀사이드 바

비큐존'은 기존 2개 구역(실외 유아풀존, 인피니티존)에서 4개 구역(키즈풀존, 스카이존 추가)으로 확대된다. 사전 예약 후 식재료와 조리도구를 가져오면 간편히 이용 가능해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큰 인기를 끌 전망이다.

김려균 디오션리조트 실장은 "2025년 여름 시즌은 단순한 물놀이를 넘어 공연 문화와 휴식이 어우러진 복합 테마파크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며 "고객 안전과 즐거움을 최우선으로, 여수를 대표하는 여름 명소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한편 디오션 워터파크는 오는 14일부터 매일 운영되며, 입장권 예약과 운영 일정 등은 디오션 공식 홈페이지와 SNS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여수=이경기 기자